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법(法)도 또한 공(空)하다

제가 누구이, 우리가 객관적 사태라고 부르는 것 또한, 실은 주관적 관심의 흔적이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말과 이름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다"는 물론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은 ~이다"라는 것 또한 이미, 주변과 세상에 대한 모종의 '판단'인 바, 그것은 이런저런 관심과 이해관계에 의해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객관적 사태란 없습니다. 아니, 이 말은 정확하지 않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객관적 사태는,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객관적 사태가 아닙니다. 붓다는 그래서 "진리는 아리안 의 고귀한 침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바, 법(法)도 또한 공(空)한 것!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이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일체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 나셨다고 했습니다.

**술병에 반이나 남은 술**  
좀 어렵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술병에 술이 반밖에 안 남았다"

와 "술병에 술이 반이나 남았다"는 서로 다른 진술입니까 같은 진술입니까? 아비달마라면, 여기서 '반'에 '나'나 '아' 따위의 강조구는 분명 주관적 개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술병에 술이 반이 남았다"는 진술은 객관적 법(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수 등이 주도한 대승의 중관(中觀)은, "술이 있다"라는 진술 자체가 이미, 술에 대한 발상자의 '관심'을 포함하고 있고, 그 사태를 향한 모종의 '태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려 합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술이라는 대상은 지각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거기 얼마쯤 담겨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지는 더더구나 않았을 것이며, 당연히 그에 대해 이러저러한 토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유무(有無)는, 이른바 객관적 사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자아의 관심에 의해 '의미화된 것으로서의 존재'와 관련된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불교가 유무(有無)를 말할 때, 그것은 법(法)이 아니라 상(相)에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요컨대 불교가 말하는 무(無)는, 교실을 들어서며, "어! 아무도 없네!"라며 문을 닫을 때 그때 판단한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 교실에는 실제 여러 학생이 어울려 떠들거나 책을 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다른 방에서 "기집애, 여기 있었네" 하면서 찾던 유(有)를 확인하고 안도할 것입니다. 유무(有無)에 대한 이 주관적 태도는 그 여학생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내 몸, 내

이상(我相)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상이 침묵의 실제(實際)를 간섭하고 그것을 토막 내서 차이를 만들고, 그것은 늘 차별로 미끄러집니다. 불교는 이 분별(分別)이아말로 세상의 비참과 곤혹을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기억하실 것은, 유(有)와 무(無)가 정반대의 극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 이상(我相)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늘 만나

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구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有)도 아니다. 무(無)도 아니다. 유이면서 동시에 무인 차별로 미끄러집니다. 불교는 이 분별(分別)이아말로 세상의 비참과 곤혹을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기억하실 것은, 유(有)와 무(無)가 정반대의 극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 이상(我相)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늘 만나

**모래성을 쌓고 허물며 노는 아이들**  
그러니 바깥의 반연(攀緣)을 쉬고 깊이 숨을 들이키십시오. 세상은 본시 고요하고 평등(平等)한 것, 우리는 법계(法界)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조각을 하며 장난치고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놀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성을 쌓았고 부수기에 으르렁대던 아이들도, 해질 무렵 어머니가 부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래성을 짓밟고 발로 이긴 다음, 저녁을 먹으며 달려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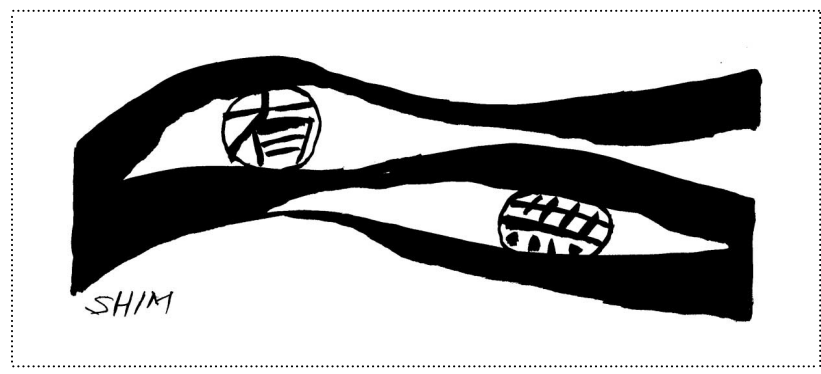
하나 더 유의할 것은, 이 소식을 가르치는 불교의 가르침 또한 실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유희의 마음으로 세상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가르침이 아득다라삼삼보리, 더 없이 위대한 지혜이고, 말후구(末後句), 즉 최종적인 한마디인 만큼, 더 위태롭고 더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 독성을 스스로 해독하고 나십시오. "내가 말하는 지혜는 그러나 지혜가 아니라(佛說般若波羅蜜, 即非般若波羅蜜)." 이 자기부정(自否)이아말로 불교가 진정한 지혜임을 일러주는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있다(有)·없다(無) 같은 말이라니?

가족, 내 새끼, 내 편당, 내 민족, 내 국가라는 복극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고, 제 편(我)대로 세상을 사는 바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토록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독백만 하고 있는 분절된 삭막한 도시가 우리가 사는 풍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이 그토록 이상(我相)과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과 수자상(壽者相)을 경계하고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그리고 이름을 떠나야, 우리는 서로와 더불어 마음과 말을 나누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有)와 무(無)는 결국 같은 말이다?**  
유무(有無)와 시비(是非)를 말할 때, 오고 감(去來)을 말할 때, 많고 적음(增減)을 말할 때, 좋고 싫음(好惡)을 말할 때, 그 어디든



불교 언설의 역설과 모순, 모호함과 아이러니의 진원지입니다.

불교는 경전의 언설장구(言說章句)마다, 유와 무가 결국은 같다는 것, 그 둘을 동시에 벗어나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구정령 가르칩니다.

불교, 그 가운데서도 중관(中觀) 불교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사구백비(四句百非)라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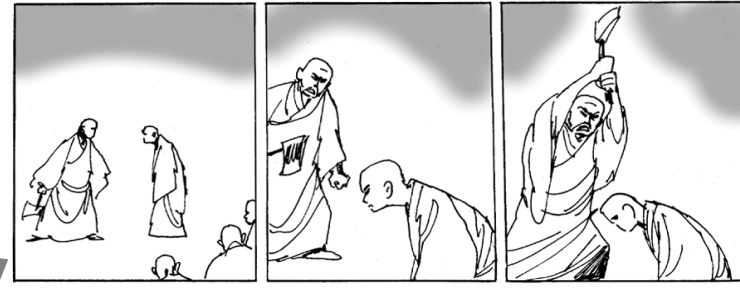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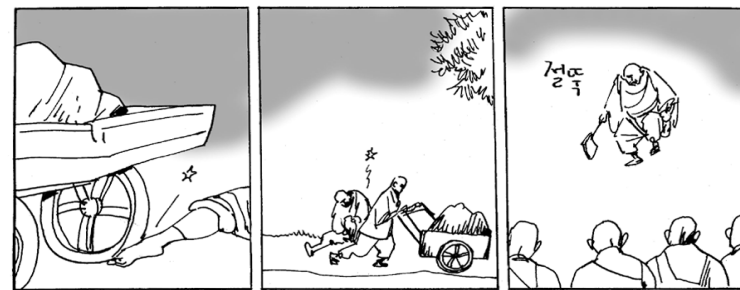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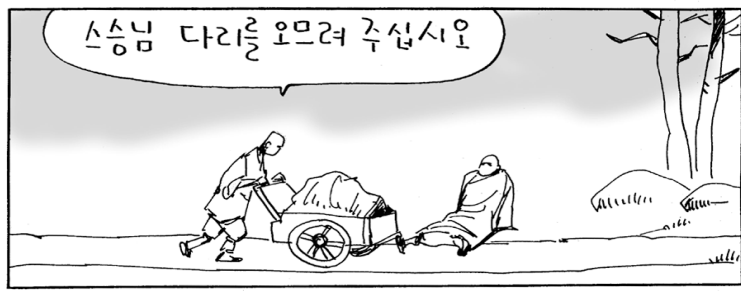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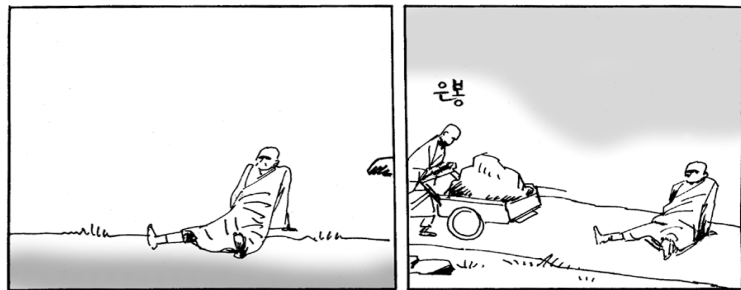
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현실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들 그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을 '해결'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작고 사소한 것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을 두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고통을 받았으며, 남들과 다투고 심리

주장사파라...

은봉선사의 '물구나무' 입적



조태호



은봉선사(?~?): 중국 당대 스님. 마조 도입과 함께 석두회전에게 배움. 겨울에는 형아, 여름에는 청량산에서 수행. 오대산 금강굴앞에서 거꾸로 서서 입적.

네터즌 교리문답

“도인(道人)이 무엇입니까?”

경전을 읽다보면 도인(道人)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도인(道人)의 정의(正義)를 내린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확차)

답 1 : 도(道)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줄 아는 것이고, 그 실력자를 도인이라 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다 알아들으려면 삼처전심(三處轉心)과 팔만장경의 뜻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지가 도인이다. 하지만 그 뜻에 계합하지 못하고 신통이 내는 것은 요술(妖術)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술(道術)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된다. 그것은 본심(本心)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 말씀은 본심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소개한 말이다.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도인이 아니다. 마음에 대한 소리인데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선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 분상, 그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격이 됐다는 것이 도인이다. 도인이라는 것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걸 못 알아들으면 도인이 아니라 요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힘을 알고 신통이 나는 것이 도술이다. 요술은 요사스런 생각이 통일되면 나타나는 것이다. 추번뇌를 항복받아서 나타나는 도술은 소승교(小乘敎)의 도인이 쓰는 것이고, 추번뇌·세번뇌를 모두 항복 받고 나타나는 도술은 최상승선, '마음을 깨달은 도인'이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제)

답 2 : 내가 생각하는 도인은 동트는 새벽이면 밤사이 내린 감로이슬을 마시고, 생수 잎을 한 움큼 뜯어서 뱉숙을 달랠다. 백설처럼 단아한 흰옷을 입고 노루 사슴을 타고 청산을 누비며 때로는 백학을 타고 속세를 나뉜다.

임에는 백학단약을 머금고 눈은 천리를 주시하며 귀는 만세에 두루하니 얼굴은 백면에 티끌이 없으며 몸에서는 광휘가 찬란하고 손 한 번 휘저으면 삼천리를 날아가고 한 발짝 움직이지도도를 접어서 달리더라.

그와 말하는 이는 참새와 소나무와 토끼풀이요, 그가 하는 말은 기이한 언어라서 범인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눈으로 말하고 말할 때는 기이한 광명이 수를 놓고 입에는 육이 없고 입을 열면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로, 피부로 호흡하며 부드러운 봄날의 미풍과 같아라. 콧속에는 만세를 비추는 신비구슬이 돌이니 기묘 묘경의 기인이라. (춘송)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13	
	5	14		15
			6	

상식퍼즐

1. 출근상황을 적는 장부 2. '빨을 바로 잡으려다 오히려 소를 죽임' 3. 해가 지는 일 또는 해넘이 4. 처음 대하는 얼굴, 측면(側面)의 반대 5. 조선시대 식사예절로, 음식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다섯 가지 마음가짐 6. 지도에서 표준해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들을 연결한 곡선.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시드라타 태자가 생사해탈의 대원을 세우고 왕궁을 떠난 날로 음력 2월 8일 7. 병력 등이 하천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놓아만든 다리 8. 남을 웃기려고 하는 우스운 행동이나 말 9. 각 부분이나 항목에 대한 논설, 총론의 상대적 의미 10.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1. 상식에 벗어난 12. 벽을 보고 참선하는 수행법 13. 크게 깨우침 14.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가격 15. 초파일에 등불을 달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일.